

# 광주·전남 자영업자 10명중 8명 '나홀로'

### 자영업자 45만4000명...1년새 1만1000명 증가 운영구조 취약·마구잡이 창업으로 생존경쟁 심화 "성공률 10% 미만...철저한 조사·전문가 상담 필요"

'치킨집 사장'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가 경기침체에도 되레 증가하고 있지만 10명 중 8명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과잉공급 현상을 보이는데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 장사에 나서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는 45만4000여명으로 전년동기 44만3000여명보다 1만1000명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12년 25만800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2분기부터 급증했다. 경기 등 다른 지역 시·도가 메르스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난 것과 달리 광주와 전남 지역은 폐업 속에서도 신규 창업이 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광주·전남 지역에 자영업자 창업이 늘어나 배경은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젊은 층과 노후가 불안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심의 자영업 창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자영업

자는 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5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81.3%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또는 무급 가족종사 형태의 영세자영업자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000여명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운영구조가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부담은 커지는데 매출이 부진하다보니 직원 없이 운영하는 영세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분식집을 새로 연 김모(54·여)씨는 "창업자금도 넉넉하지 못했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않아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당분간 시집간 딸이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창업시장을 중심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여는 마구잡이식 창업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을 우

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창업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을 보이는 곳은 제한적이어서 자영업의 과잉공급에 따른 생존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현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은 "대학졸업 또는 은퇴자들이 손쉽게 생각하고 음식점 등의 창업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 업종은 이미 포화상태로, 과열 경쟁 구조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며 "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창업지원 정책도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창업을 해서 살아남는 비율은 10% 선도 안된다고 봐야하는 만큼 창업을 위해선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전문가의 카운셀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846.50 (+16.82)
-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2)
- ▲ 코스닥 645.43 (+32.10)
- ▼ 환율 (USD) 1195.30원 (-3.70)



## 한전, 에너지 동반성장 상생협약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5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총영) 및 한국전 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와 에너지 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전용 자금 지원으로 동반성장 지원 확대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성과 공유 계약 확산 ▲1, 2차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 및 해외 동반진출 확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2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자금 출연 및 에너지 기업 500개 유치 등을 통한 에너지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환익 사장은 "한전은 독창적이고 따뜻한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아시아대양주 시장개척단 모집 중소진흥공단 광주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태연)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아시아대양주지역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광주시 아시아대양주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5일간 모집한다. 이번 시장개척단의 참가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인 광주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이며,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아시아대양주 2개 지역(호주 시드니, 싱가포르)에 파견한다. 수출접기품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와 광주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발굴, 단체 수출상담 주선 및 통역배치, 왕복항공료(50~70%)를 지원받는다. 단, 여행자 보험, 현지 숙박비 등은 참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kimsv3@sbk.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중진공 광주지역본부(062-369-3051) 또는 광주시 기업육성과(062-613-3881)로 하면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노조 선거 연기...파업 장기화 되나

### 사측 "대화 통한 해결 최선"

전면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노조가 25일 노조집행부 선거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노조가 선거보다는 파업을 통한 교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여서 현재 진행중인 전면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5년 단체교섭과 관련한 전면파업이 진행 중이므로 집행부 선거 일정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측과 진행되고 있는 교섭 역시 현재의 집행부가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조는 규약상 집행부 임기 만료 20일 전인 오는 9월 10일까지 선거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대의원대회에

서 '일단 선거 일정을 미루고 현 집행부 체제로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단체교섭과 전면파업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집행부가 교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전면파업을 이어가며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이날 현재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매출 손실이 45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파업 지속'을 예고한 노조의 이번 결정은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사측은 전면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도 지속적으로 노조측에 집중교섭을 요청하고 있으나 노조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와 현장사원, 협력업체의 피해를 불모로 '조직만을 위한, 노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역경제계와 지역시민들의 우려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어 "파업에 따른 손실 확대와 노조의 무책임한 교섭 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대의원 대회를 통해 선거까지 연기하며 교섭을 하지도 한 만큼 노조에서는 현재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에 집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금호산업 채권단 매각 희망가 취합...일부 7천억원대도

금호산업 채권단이 산업은행에 각자가 원하는 금호산업 매각 희망가격을 제출했다. 일부는 7000억원대의 가격을 적어내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이를 토대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제시할 최종 매각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5일 "22개 채권기관들로부터 희망 매각가격과 관련한 의견을 모두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최종 매각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개 채권기관의 의견제시 비율은 97%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각 채권기관에 '25일까지 금호산업 희망 매각가격을 비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날 채권기관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희망 매각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각이 빨리 성사되기 원하는 일부 채권기관들은 "비교적 낮은" 7000억 원대의 희망 매각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채권금융회사들은 적정 매각가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에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적투자자(FI)를 대표해 1조213억 원의 매각가격을 고수해 온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최종 의견을 산업은행에 제시했다. 22개 채권기관들이 의견제시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매각가 결정은 산업은행의 손으로 넘어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신한은행, 금남로에 '고자산 고객 상담센터'

신한은행은 25일 '신한PWM(Private Wealth Management) 광주센터'를 개설했다. 광주 중심가인 금남로에 위치한 신한PWM 광주센터는 도심 내 접근성이 양호해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권 일대 고자산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개점으로 27개의 PWM센터 네트워크를 완성해 전국적인 PWM채널망을 구축하게 됐다. 신한PWM은 그룹차원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IPS 본부의 지원을 받아 상속, 증여, 세무, 부동산 등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뱅킹(PB) 센터로 2011년 첫 출범 후 4년째를 맞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학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요일, 화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